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강해

## 바울의 소망

(에베소서 6:20-24)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 1.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언제든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는 어느 교회에든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는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셋째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자신의 형편이 허락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방문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직접 심방하면서 성도를 살피고 격려해야 합니다.

### 2. 바울의 소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 5:2). 평강과 사랑은 함께 나옵니다. 평강이 사랑이고, 사랑이 넘실거리는 곳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화해를 가져오고, 사랑은 평강의 근원이 됩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소원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울은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만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잘못 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한없이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며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서울교회와 모든 한국교회가 받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Paul's desire

### (Ephesians 6:20-24)

This passage is the last part of the letter that the apostle Paul wrote to the Ephesian Church.

### 1. The way in which the apostle Paul served

We find out that whenever the apostle Paul served the church, he served in the following three ways:

The first was through prayer. To every church, he said, "I pray for the church."

The second was through the sending of letters. The Apostle Paul sent God's word in the form of a letter, in order to encourage as well as admonish the church.

The third was that he himself visited. In the cases that he couldn't, he sent another person on his behalf.

In those days, the apostle Paul established the church, which was Christ's body, through the above-mentioned ways. While we can certainly serve the church through prayers and God's word, we must also remember to visit, care for, and encourage our fellow saints.

### 2. Paul's wish

Paul wanted the Ephesian church to grow in peace, faith, and love. Jesus Christ demolished the wall that separated us. He made us into new persons, making us peaceful, and giving us peace.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Ephesians 4:3). "And live a life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Ephesians 5:2). Peace and love come along together. Peace is love, and where love is rising, peace is sure to follow. Peace brings along reconciliation and love is the source of peace. Paul's other desire was that the Christians would connect with the church through God's grace. He hoped that Christians would love Jesus Christ without change, and that the church would be full of God's grace. Here, we can see that a loyalty for God and the grace given by God come along together. We cannot say that we have only received God's grace, but not His love. Nor can we say that we love God, but have not received His grace. We must love God without change, and in turn, the church must endlessly receive the abundant grace that is given by God.

### My beloved Christians!

The apostle Paul said that if the church, Christ's body, was filled with the peace, love, faith and grace of God, the Ephesian believers would remember these four things. These things were the apostle Paul's last greetings, his last desire, and the title of his last prayer. These words must be kept by Seoul church as well as by all the churches in Korea, just like the Ephesian church. By loving one another with an unchanging mind, and enjoying the endless grace of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please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بل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성탄절기예배

- 성탄축하 찬양예배 - 19일(주) 찬양예배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 성탄전야예배 - 24일(금) 오후7시 - 본당
- 성탄절 새벽예배 - 25일(토) 새벽5시 - 본당
- 성탄절 감사예배 - 25일(토) 1부:오전9시 / 2부:오전11시 - 본당

성탄절기를 맞아 우리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 나심을 축하드립니다. 19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4일(금)에는 성탄 전야예배를 오후7시 본당에서 드리는데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 어린이찬양예배부)과 사랑부에서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여 성탄을 축하한다.

성탄 당일에는 새벽5시 본당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감사예배는 오전9시와 오전11시에 두 번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 2011년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기도회 - 12월31일(금) 오후 7:30 - 10:00**  
**순결서약식 - 1월2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11년 순결서약식이 1월2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갖게 된다. "주를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요일 3:3)를 주제로 시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性)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로 결혼전까지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로 참가신청은 각 담당 교회학교에서 취합하여 12월22

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이며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에 시작하여 15년째 계속되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 2010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12월18일(토) 오후2시30분**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우리교회 주관으로 12월18일(토) 오후2시30분에 거행되며, 이날 설교와 성찬집례는 이종윤 목사가 담당한다. 당일 오전8시30분에 세례, 성찬위원은 웨스트민스터 홀에 모여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9시 교회에서 출발한다.



## 2010 한국 군선교의 밤

**12월16일(목) 오후5시, 서울교회 본당**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주제로 2010 한국 군선교의 밤이 12월16일(목) 오후5시에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군선교사역자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 행사는 한국교회 군선교사들의 연합과 성탄 송년 예배, 2010년 사역결산 감사와 2011년 사역헌신 다짐을 위하여 개최되며 오후5시부터 8층 만나홀 앞에서 등록을 접수받으며 만찬 후 오후6시20분부터 성탄음악회가 열리고, 7시10분부터 열리는 예배는 이종윤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다.



## 2011년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접수 - 사무국**

2011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를 접수받고 있다. 농어촌100교회 운동은 고향을 지키며 어렵게 목회하는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여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 한 구좌 10만원이다. (1/2구좌도 가능)

또한 Vision2020 운동은 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복음화 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군입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있다. Vision2020 운동 후원금은 장병1인 세례경비(1구좌 5,000원 2구좌 10,000원)를 후원하는 것이다.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는 운동으로 한 구좌를 10만원으로 하며, 형편에 따라 1/2구좌도 가능하다. 어린이, 청소년은 1구좌를 5,000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학생들도 선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토록 하고있다.

우리교회는 올 한 해 동안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 2억3천6백만원을 후원하였고, Vision2020 운동에 1억2천5백여만원, 선교비로 7억7천7백여만원을 후원하였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가페 기독교 소망교도소 준공

**준공감사예배 12월7일(화) 드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여주군 북내면)"가 12월 1일(수) 준공되었다. 소망교도소는 1992년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매월 모여 기도회와 세미나를 열고 추진하던 중 1995년10월 한기총 내 기독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종윤 목사)를 발족하여 2000년 12월 국회에서 민영교도소법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2010년 12월



1일(수) 국영교도소로부터 수용자 30명을 위탁받아 소망교도소를 개소하였고, 12월 7일(수) 설립에 힘을 보탠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날 예배에서 이종윤 목사(사재법법인 아가페 이사)는 "교도소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격려사를 전하였

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각계 주요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박명환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은 교정행정의 모범이 되길 바라고, 소망교도소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에 출타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의 축전을 전하였다. 복음을 통해 재소자의 재복 역할을 현22.4%에서 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소망교도소는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도 이 사회를 살리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은혜의 요람이 되길 바라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뤄지는 우리나라 되길 기도한다.



# 2011년을 섬길 일꾼들

전국세민양성



**김진환 집사 (제1스데반회 회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 한없이 부족하고 게으른 죄인에게 감당키 어려운 제1스데반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직임을 받으면서 제 자신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가 자문해 보고 지극히 미력함에 겸허한 반성과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서울교회가 만 20살이 되는

성년의 해이기도 하지만 이종윤 위임목사님으로 부터 박노철 목사님으로 목회가 이양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기도와 순종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데반회는 말씀과 기도로 정착시켜 놓으신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잘 계승, 발전시켜 믿음의 선배들이 다져놓은 세상의 나침반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서울교회의 전통을 믿음의 계대로 이어 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지난 19년동안 우리는 이 시대의 칼빈으로 칼빈주의를 몸소 실천해 오신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함께 있

어 행복했고, 특히 사망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목회자들도 일생에 한번 읽기도 힘든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를 통해 4주 내내 말씀으로 살아온 가슴 벅찬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제1, 제2 스데반회가 하나가 되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데 앞장 설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이 한 몸 바쳐 겸손히 주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지열 집사 (제2스데반회 회장)**

독수리가 날개치며 또 다시 비상하고자 하는 서울교회는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모두 품고 함께 가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교회에서 이처럼 막중한 직임을 맡게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큰 광영이지만 말할 수 없는 무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직임을 맡고자 하오니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와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그 동안 16기에 이르기 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많은 업적을 쌓아 왔는데 이제 17기도 선배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제2스데반회는 2011년도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첫째, 전도와 선교의 활성화에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 동참한다. 둘째, 웃어른을 존귀히 여기며 경로사상을 고취시켜 준다. 셋째, 회원의 영성훈련에 역점을 둔다. 넷째, 회원간의 친목과 연합을 위해 힘쓴다.

이상과 같이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자 하오니 부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예환 권사 (제1권사회 회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 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크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업적 위에 저희는 그저 편히 복음의 참사랑만을 받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의로움, 거룩함, 지혜,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모든 비밀함을 알고자 이루어 나가려 힘쓸 때 더욱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진리가 숨쉬는 공동체로써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서울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놀랍습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터전에 굳게 세

운 아름다운 서울교회를 전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가꿔 나가겠습니다. 교회행사에 발맞추어 나가고,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선배 권사님들을 섬기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권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내겠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일을 해내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최미아 권사 (제2권사회 회장)**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내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진대 부족한 저에게 제 2권사회 회장직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할

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의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기도의 어머니로서 현신의 모범을 보이신 선배 권사님들을 본 받아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기며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권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어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으로 봉사할 것이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기쁨의 봉사를 교회의 모든 지체들

과 연합하여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2011년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의 목표에 따라 뜻을 받들어 이 민족을 향도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잘 협력할 것이며 또한 많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권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최진경 성도 (청년2부 회장)**

제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될 수도, 할 수도 없는 청년2부 회장에 약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연스럽게 갖는 열려와 두려움, 죄를 지어 끝없이 상심하는 슬픈 순간, 하나님께 죄송한 것 투성인 저입니다. 생각해보면 청년2부원 중 제가, 가장 모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회장 자리에 놓아주셨구나!' 란 마음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태가 아니기에, 이렇다 할 섬김의 행동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1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마음과 뜻을 채우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한 저이기에,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11년을 힘써 섬기겠습니다.

선교지 소식

# 나가나할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상식, 김정옥선교사(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회, 인도기도팀, 또한 성도 여러분위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 주심으로 평강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가나할리 교회에서의 사역은 주일 낮 예배, 교회학교 예배, 수요 기도회, 유치원, 방과후 학교, 고아와 과부돌보는 사역, 인도 현지목회자와 교회와의 협력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지난 6월에 개원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30분 까지 교육을 통한 복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치원생들의 학



부모와의 교제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합니다. 유치원 교사는 김정옥 선교사(원장), 스네하, 리하 교사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우상식 선교사, 스티븐, 마르타 교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성수주일을 잘 지키는 '가비타'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빌리지 교회의 성도들은 삶이 궁핍하고 재정적인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예루살렘찬양대의 솔로리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이 실비아성도의 찬양으로 드린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난파 전국음악콩쿨 1위등 수차례의 콩쿨 입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연주곡은 '생명의 양식(Carl F. Mueller 편곡)', '예수이름으로(Brian White & Don Koch)' 등 3곡을 박승기성도(고등부찬양대 반주자)의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나가나할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며 성령님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인도에서 우상식, 김정옥선교사 올림.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3일(월) 한국선교연합회(KAM) WEA와 WCC 신학과 선교 세미나 개최 설교를 한다. 16일(목) 한국군선교의 밤의 행사를 초청하고, 18일(토) 논산 육군 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집례한다.

■ 특녀: 박찬우 성도 정진희 집사(7교구)  
 ■ 이사: 문분순 집사(5교구) 관악구 신림동 1442-28호  
 윤석원 집사 현승희 집사(11교구)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248동 1802호

■ 주간식당봉사: 에스더전도회(12.12) 한나전도회(12.19)  
 ■ 금주의 식사: 배석훈 이혜연 성도 가정 (결혼을 감사드리며)  
 이현석 나소정 집사 가정 (결혼을 감사드리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영 어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2011년을 섬길 일꾼들

##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최화미(대학부 회장)



2011년도 대학부 회장으로 섬기게 된 최화미입니다. 어느새 대학부의 막내에서 1년을 남기고 있는 이때에 부족하지만 더욱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어른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기초공사를 마쳤다면, 이제 막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 주님의 향기를 발하는 집을 짓기 위한 주요공사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하나 바르게 쌓여져야 할 벽돌들은 무엇보다 단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단한 벽돌을 다지기위해선 이종윤 목사님께서 거듭 강조하셨듯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

와 찬양은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골2:11)' 는 말씀을 허락 하셨습니다. 2011년도,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신, 설계자이자 건축가-하나님께 말씀대로 더욱 더 순종하여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단단한 벽돌들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사이사이 콘크리트를 바르듯, 사랑의 콘크리트를 바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꾸준히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대학부를 위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부(92포래-87포래)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멋진 집을 지으러 701호로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4. 연말 연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 교회외시는 길

